기획보도

110억 재정지원 무효될까 '졸속' 설립되는 SW단과대학

SW대학 신설 점검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SW대학기 신축건물 없이 기존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에 신설됨에 따라 공간부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본 사진은 합성된 사진입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SW대학)이 2018년도 수시모집을 진행해 설립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정보대학(전정대학) 소속이었던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SW대학 소속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사실상 소속 학적만 달라졌을 뿐 학사나 행정은 물론 공간사용에서도 차이가 없어, "간판만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W대학설립위원회(SW대학설립위) 측도 이런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SW대학설립위 조진성(컴퓨터공학, 교수) 사무국장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해 SW대학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기존 전자정보대학 소속 학생들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가 함께 듣는 커리큘럼 등도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

당장 SW대학과 전정대학의 학사·행정이 통합운영된다. 전정대학 학장과 행정실장이 각각 SW대학 학장과 행정실장을 겸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통합운영의 가장 큰 배경은 공간문제다. 새로운 단과대학은 설립되지만 별도 건물이나 교육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도부터는 기존 전정대학과 응용과학대학에 SW대학까지 3개 단과대학이 한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전정대학 행정실 박은규 계장은 "한 건물을 세 개 단과대학이 사용하는 '한 지붕 세 가족'이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학사 · 행정 통합운영 달라지는 것 없다

문제는 이런 학사·행정 통합운영으로는 기존의 공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은 2016학년도 2학기 기준 강의실 사용률이 80%를 웃돌았다. 국제캠퍼스 소속 다른 단과대학 평균 강의실 사용률이 65.6%인 것과 비교해 매우 붐볐다. 전정대학 강의실 수용력이 이미 한계에 달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설과 컴퓨터공학과 증원 등으로 소속 학생이 증가할 예정이어서 SW대학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지 않는 한, 공간문제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심지어 내년부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다전공 허용인원을 2배~3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정대학 행정실 역시 이런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박은규 계장은 "강의실 사용률이 상상 초월이다. 공간부족은 곧 강의 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학생들은 많아지는데 강의실은 늘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박 계장은 "당장 내년부터 12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필요하지만 전정대 내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다"며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SW대학설립위 조 사무국장 역시 "공간부족 문제는 전정대학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당연히 전정대학 내 추가 공간이 더는 없는 상황"이라고 공감했다. 2016년 SW대학 설립 추진 당시 논의됐던 새 단과대학관 건축은 현재 예산 등을 이유로 추진조차 되고 있지 않다.

현재 SW대학설립위는 대안으로 산학협력관 신축, 타 단과대학 공간 공유, 혜정박물관 내 소프트웨어실습실 공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핵심인 산학협력관 건설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2월 학교는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삼성·경희산학협력관 기획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입찰을 진행했고 4월 내 착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삼성·경희산학협력관 착공일은 8월, 2017년 내 등으로 미뤄지다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대해 국제캠퍼스 황주호 부총장은 "건축을 도와주기로 했던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해당 기업과의 협력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돈으로 짓기 위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신설이지만 공간문제 해결책 사실상 없다

다시 추진되더라도 산학협력관 착공 시기가 재차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 역시 여전히 회의 테이블 위에만 올라가 있다. SW대학과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타 단과대학과 의견교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혜정박물관 공간 역시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김혜정 전 박물관 관장 소송과 연계돼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SW대학 설립 목적 두고 구성원과 대학 신뢰 깨져

마땅한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SW대학 설립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결국 단과대학의 설립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업관계자 A씨는 "사실 2018년 SW대학 설립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계획서에 의무실천 사항으로 명기된 내용"이라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사업비는 당연히 없고, 올해 받은 국고지원금 6억까지 토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단과대 설립이 추진되면서 전정대학 소속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는 물론 SW대학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 냈다. 김재현(컴퓨터공학) 씨는 "당장은 성과가 없으니 학교가 단과대학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름만 만들어서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보석(소프트웨어융합학과 2017) 씨는 "처음 단과대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대학 차원에서 이를 보다 중요하게 다룰 줄 알았다"며 "그러나 막상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다녀보니 돈을 보고 학생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실망을 표했다.

전정대학 학생회 신승룡(전자공학 2011) 학생회장은 "전정대 학장으로부터 학생 중심이 될 테니 걱정말고 기다려 달라고 들었다"며 "학생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는 단과대학 설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 TF 구성 협조를 요청했다. 단과대학을 넘어 학교 차원에서 당면한 공간문제 해결방안과 장기적인 계획을 도출할 수 있을지 경과가 주목된다.